



역수비를 맞으며 천왕봉에 서다.
 왼쪽부터 김정철 대리, 최현주 대리, 최일성 과장, 이종국 과장, 유상엽 과장, 이주영 간호사, 송중렬 국장.

비를 맞으며 지리산에 오르다

- 서울센타 2박3일, 지리산 산행기

“... 비를 맞으며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까닭을 안다/ 이런 외로움이야말로 자유라는 것을/
 그 좋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감기에 걸릴 뻔한 자유가/ 그 좋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비 맞으며 산에 오르는 사람은 안다”

문득, '호우주의보'의 위력을 보여주는 역수비를 맞으며 천왕봉 정상에 올라 광풍에 날아갈까
 서로서로 붙잡고 서 있으니 이성부 시인이 쓴 詩, 지리산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우리 일행, 8명을 빼고 아무도 없는 비에 젖은 천왕봉,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탄실하
 고 넓어진 느낌이다.

17일 오후 1시, 지리산이 우리에게로 왔다. 대원사에서 출발, 짐을 점검하며 이주영 간호사는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호우주의보'도 우리 일행을 막지 못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풀내음이 그리웠던 탓인지 첫걸음은 힘찻지만, 이내 뚝뚝 떨어지는 빗방

울에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터질듯한 심장소리를 들으니 다시 한번 '살아있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오후 4시 30분, 돌계단과 돌길을 밟으며 무재치기 폭포에 도착했다. 배낭을 잠시 풀고 무재치기 폭포를 바라보니 아스라이 높은, 폭포 위에 용을 닮은 나무가 서 있다. 멀고

것이다. 하지만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다. 변덕스런 산날씨에 희망을 걸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10시 30분, 정상을 향해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비를 맞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쉬움이 남는 것, 그래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사람의 발자국 위에 포개지는 자신



치발목 산장에서 천왕봉을 향해 떠나기 전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고사목이 있는 제석봉, 하늘이 열렸다.

아득하여 가기 어려워 주저앉아 정상만 바라보는 모습...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후 5시 30분, 굵어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치발목산장'에 도착했다. 분주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우린 웅기종기 앉아 촉수 낮은 등불 아래서 산장을 뒤흔드는 빗소리를 들으며, 김정철 대리의 체력을 바닥나게 한, 산청에서 공수(?)해 온 흑돼지 삼겹살에 '참이슬'을 먹으며 웃음소리 가득한 지리산 첫날밤을 지새웠다.

18일 새벽 5시, 그야말로 칠혹같은 어두운 바깥, 그칠 줄 모르는 비를 바라보며 송중렬 국장님은 긴 한숨처럼 담배연기를 뿜는다. 기상특보 발령으로 산행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하산을 결정해야 하는

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철계단을 오르고 몰려오는 운무와 비바람에 자신도 잊어가며 씨리봉(1602m)기슭을 지나 1시 30분에 비 내리는 천왕봉(1915m)을 밟았다. 아무도 없는 천왕봉을 점령하니 처음 온 사람도 자주 오른 사람도 감회가 새로운 듯 했다.

그만큼 올랐으면 그만큼 내려가야 하는 법, 통천문을 지나 장터목산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누가 말하지 않던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다음에야 행복이 온다고... 제석봉으로 가는 길목, 산새소리를 신호탄으로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이 열렸다.

걸음을 멈추고 산마루에서 사위를 바라본다. 멀리 굽이굽이 겹겹으로 물결치는 산줄기들, 지리산이 어머니같은 넉넉함을 보여 주었다. 이제는 조금 거추장스런 비옷을 벗



가방과 옷은 젖었지만 미소와 마음만은 쾌청!



너무 잘 걸어 여성으로서 대우를 못받았다고 투덜대면서 내려왔던 최현주 대리와(왼쪽) 이주영 간호사(오른쪽).



내려가는 길은 정말 자신있더라 하산 길에서 한 컷!

기 위해 앙상한 고사목이 줄지어 서 있는 제석봉 돌계단, 햇빛아래 모두들 앉았다.

“따뜻하다. 7월의 햇빛이 덥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다니 신기하네” 유상엽 과장의 말에 다들 신기하다는 듯 동의했다.

19일, 일정이 또 변경되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장터목산장에서 백무동 계곡으로 하산하는 일정이었는데 자고 나니 바꿨다. 세석평전으로 가서 의신을 지나 쌍계사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배낭을 꾸리고 9시 30분에 세석을 향해 출발했다.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휘파람 나는 맑은 날씨와 산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젠 몸도 지리산에 익숙해진 듯 올라가는 힘겨움과 내려가는 길의 편안함이 되풀이되는 산행에 여유가 생겼다. 촛대봉(1703m)을 지나 세석평전을 지나 본격적인 하산길에 접어들었다. 물따라 난 길을 걸어 한참을 걸어간다.

“누가 이 길을 만들었을까?” 빨치산 발자취가 남아있는 대성골 들머리에서 지친 최일성 과장이 묻는다. 지리산에 점철된 역사의 상처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견게 만든 이 길의 옛사람에 대한 푸념일 것이다.

2시 30분, 오랜만에 많은 비로 신이 난 듯 급하게 내려가는 계곡물에 발 담그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산행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햇반의 최후를 만끽한 만찬이었다.

허리 한번 다시 두드리고 내려오는 하산길, 마지막에 작고 양증맞은 산수국이 이만치 나와 손을 흔들어 준다. 4시 30분, 사람은 정신의 먹이를 찾아 산에 오른다고 한다.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분량만큼 풍성한 마음을 담고 산을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

